

1992. 4월 첫번째

월간 파라 포커스

MONTHLY *The PARAGLIDING FOCUS*



하늘과 비행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물 발행

파라 포커스-이렇게 꾸며집니다.

- *원정비행기***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모르는 세계 여러곳으로 비행은 다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원정비행 기록을 묶어서 경험을 함께 나누며 국제조계(鳥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코너로 만들고자 합니다.
- *대외 보고*** 국내의 여러 크럼에서 주최하는 대외가 연간 수차례 있습니다. 대외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여 비행자에게는 소식을, 대외를 주최하고자 하는 크럼에게는 유익한 참고 정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이런비행 저런비행*** 개개인 기억에 남는 비행의 소중한 체험을 소개하여 공감의 시간을 가져 보고 싶습니다. 특히 사고를 경험한 비행자의 수기를 통하여 간접경험 및 교육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 *관판만요!*** 이미 알고 있는 비행자에게는 재확인용, 아직 모르는 초급비행자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케 하는 코너입니다. 국내의 교육용 서적에서 탈취하거나 외국의 전문 서적을 번역, 수록하여 점차 고도의 비행술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동호인의 질문 사항도 상담 해 드립니다.
- *우리 모임 이야기*** 국내에 있는 여러 팀들을 지상을 통해서라도 만나 보고, 이 것이 작은 교류의 장(場)이 되기를 바랍니다.
- *동호회소식, 동호인소식*** 동호인 개개인의 경조사에서 동호회의 작은 동향까지도 함께 알고자 합니다.
- *증고장비 지삼시장*** 장비를 바꾸고자 하는 분, 증고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는 클라이머 베틀시장입니다.

파라포커스는 동호인들이 곧 제작자이며 편집자입니다.

여기 소개된 코너 외에도 여러분의 제언을 들어 점점 나아지는 월보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파라포커스

우리가 자주 만나야만 하는 까닭은

시대가 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잠시나마 머리를 쉬고 자연 그대로의 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의 끈이 너무 짙기 때문에.

미행울 하려던 천상 몇 안되는 환공장으로 가야만하기 때문에.

파라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에서 간간히 선후대의 모습을 보면서 통지애를 실감하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던 못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왕이던 우리가 파라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만드는데 주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후대 잘되게, 잘되는 선대 더욱 잘되게 서로 도와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세상, 선대들 얼굴 알아줘야 재문하는 일 없겠기에.

일년에 몇번 대회에서 잠깐씩 만나기에는 언제나 아쉽기 때문에.

세사람씩 차에 나뉘바엔 유요도보도 마음놓고 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바쁘다고 평계대는 사람은 인간성이 나쁜거로 매도되기 때문에.

자주 만나오면 그동안 습하게 나무 낸거, 고발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주 만나야만 하는 까닭은,

우리가 무심하던

절대로 파라포커스는 계속 나올 수 없으며,

참신한 후대 하나 절망으로 인해 시름시름 죽어갈지도 모른다기에....

오끼나와 제5회 항공라이더,

제2회 파라글라이더 대회 참가 일지

조수커 김 요섭

대 회 명 : 제5회 전국 항공라이더, 제2회 전국 파라글라이더 대회
기 간 : 1991년 11월 21일 ~ 11월 24일
장 소 : 오끼나와현 나고시 데니아(天仁臣), 가요(嘉陽)항공장
참봉장소개 : 데니아 - 표고 90m, 빗지 3km 육풍 육은 풍풍
10-4원이 최적기, B급 이상.
가 요 - 표고 80m, 빗지 2km 남동~남서풍
5-9원이 최적기, B급 이상.
목 정 : 두 군대가 나뉘어 위치한 해턴으로 차량이동시 30분정도
소요되므로 그 날 바람상태에 따라 수시 이동이 가능.
서멀은 약하나 빗지가 워낙 뛰어나서 비행자가 원하는
한 한나절 비행도 가능.
마다 한쪽으로 100m 이상까지 아름다운 산호가 내미쳐서
바다와 하늘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나, 착륙장이 해안인
관계로 여름에는 착륙시 역행제의 델트에 유의 할 것.
두 군대 모두 이륙장까지 차량이동 가능.

<첫째 날>

노는 것도 애쓰면 길이 트이는지 운동계도 왕복 15만원 짜리 오끼나와행 전세기 신세를 지게 됐다. 180인승에 25명이 앉아가는 기내. 날씨가 맑아서 한라산 백록담이 보인다며 기장이 제주 상공을 무바퀴나 선외에 주었다.

첫 해외여행도 아니면서 글라이더 타러 해외로 가는 것에 대한 설렘이 고한 긴장감으로 다가 온다. 25명 중 우리 일행은 6명. 그 중 한 문은 단지 구경하러 가는 방문객이 이고 카멜레온의 유효영 회장, 정성주, 이정현, 항공연맹의 박은수교관이 나와 일행이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나하공항에 도착했다.

유희장이 조직위원회에 도착 전화를 거는 사이 마름 나온 사람 좋은 노하.

뉘가 그리 즐거운지 우리를 데리고 다니며 연신 웃어 대고 다문 차와 계속 무전교신을 한다. 한국사람들 왔다고.

결장 대회장소로 가니 너무 예쁜 바다.

모래사장에서 100m까지는 파닥속 산호가 완히 보이는 아름다운 테니아(천인옥)해안.

흐린 날씨, 약간 쉼 바람. 그러나 시험 비행을 하기로 했다.

박은수, 유호영, 정성주, 이정현 모두 나가고 내 차례.

단독 후방 이륙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아서 그냥 치고 나가기로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 주려고 했는지 습격 옆으로 밀었다.

그 순간 한쪽으로 글라이더가 접하며 오키나와 바닷가 계곡에 처닥쳐 버리고 말았다.

어찌니 당황되고 창피하고 약이 오르는지..

그것도 순간. 흠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상판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해서 가슴이 뛰고 있는데 박은수씨가 구름하러 와서는 놀리는 바람에 완전히 기가 죽고 말았다. 그날 저녁 주위의 위로로 맥주 한 잔을 하며 바라 본 오키나와의 야경과 창가에 비친 내 모습은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지던지..

<동대날>

새벽부터 일어나 전날 무박한 수선테이프, 바늘, 실을 가지고 글라이더 수리를 시작했다.

개회식에 맞춰 거의 수리가 끝났을때 전날의 서운한 감정은 사라지고 감사함이 앞서니 나도 역시...

개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여유가 생겨 장난기기 말동해서는, 주유 놀이 놀은 상태와 브로의 증받고 싶은 상이라고 우송브로의와 바람의 여신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개회식이 끝나고 하루 사이에 다다미까지 깔려 준비가 끝난 경기장엘 갔다.

현지인의 원트머미 비행과 우리측 박은수씨의 시험비행부터 취재열기가 뜨겁다.

경기종목 발표. 상급자는 10분, 제한시간(SET-TIME)비행에 정밀착륙(TARGET)전수. 중급은 자기 신고 시간에 정밀착륙 전수를 함친다고 한다.

한두사람 나가는걸 보니 도저히 시간을 맞출것 감지 않다. 결국 이륙하고 나니 타겟만 노리자는 생각이 앞섰다. 고도를 조금씩 낮추는데 아무래도 다가오는 목표점에 내리기엔 고도가 너무 높다. 회전하기엔 부담이 앞서고, 바닷가를 볼러 보는데 푸른 빛이 눈에 들어 온다. 순간, 나무가 있는 언덕을 돌아야겠다는 생각이 붙어 언덕이 들어섰는데 타겟을 향해 가는 감각이 아주 좋다.

착륙전수 만점!

얼떨떨한 기분. 아련히 들려 오는 파수소리.

프런트차 힘을 만큼 갇힌 바다를 느끼 물 여유도 못갖고 착륙한 억음함.

대충 수선한 글라이더가 못 미더워 추가 비행은 포기했다.

밤이 다시 오고 어제는 달리 맥주맛은 시원하기만 했다.

운수 좋은 날. 술 권하는 봉지들.

<서대남>

체육장엘 나가 보니 바람이 어제만 못하다.
 그때도 우리 기둥으로는 나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가요로 장소를 옮겼다.
 가요는 전날부터 헬글라이더 체육장소였던 모양으로 오늘은 구경거리가 더 많아진 셈이다.
 오늘 경기 종목은 모래주머니 멀리뜨리는 마카경기와 타겟 날씨는 맑아 우리 초여름 같다.
 헬글라이더와 함께 치루느라 시간은 밤이 걸리고 우리는 바람이 약해져서 모두들 주저하는
 동안에 모두 실패없이 나갔더니 일꾼인들이 놀라더라나?

어제의 결과가 좋았으니 욕심이 생겼다.
 그런데 모래주머니를 쏘내려 하는데 하네스가 망해되어 잘 나오지 않는다.
 이 경기에서 우리편은 유일하게 득점을 한 정성주씨의 경우엔 바치주머니에 넣었는데 잘고
 앉은 꼴이 되어 쏘내느라 애먹었다 한다.
 겨우 던질 준비를 하니 바닷바람을 땀으로 맞으며 글라이더 진행속도가 훨씬 빨라 지고,
 결국 목표지점을 맞나가고 나니 타겟이 쓴살같이 다가 온다.
 갑작스럽다가 타겟도 벗어 나고.
 오전 일정을 끝내고 오후 자유미행 때는 자유의 여신, 산타클로스, 여러가지 동화 속 주인공
 복장을 한 비행자들이 하늘에서 내려 오며 즐거움을 제공한다.
 조그마한 국민학교 운동장. 이때까지 구경만하던 망전대씨가 우리 모습에 만났다고 데워보시
 겠다. 그래서 축에서 지상교육을 실시했는데 덕분에 무고하고 험한 제자님 한 분을 무게
 되었다. 내일은 바람이 셀 거라는데...

<마지막 날>

역시 섬사람들이라 그런지 정확하다.
 새벽부터 일어나 친절한 친구 스즈키와 함께 체육장엘 가 보니 배풍같다.
 결국 경기는 취소되고 오키나와 기념공원으로 관광을 간다.
 멋진 수목관, 아름다운 식물원, 민속마을.. 경기 못 한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좋다.
 숙소로 돌아와 보니 어제까지의 성적으로 내가 3등이라며 임시 상장을 만들어 준다.
 상패와 정식 상장은 서음로 보내준대며.

끝까지 따뜻한 대응을 받으며 버스터미널까지 오니
 그새 정분 사람됨, 눈빛이 애잔하다.

아쉽지만 따뜻한 여행.
 꽤 부른 느낌.



'92년도 전국 파라글라이딩 Open전

대구 비버드 클럽(회장 임양규) 주최

'92년도 첫번째 대회가 9월 8일 일요일, 경북 달성군 구지면 소재 대니산(408M)에서 열렸다.

30개팀 17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맑은 날씨와 깨끗한 마탄속에서 시종 축제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경기는 체공시간, 기점 통과, 정밀착륙의 세 종류로 치워졌으며 득점 규정은 아래와 같다.

경기종류	득 점 내 용
체공시간 기점 통과 정밀착륙	20분에 1,200점 만점. 초과시 초당 2점 감점 A:300점, B:500점. 만드시 A종과 후 B종과 30cm 이내 1,000점 만점

*착륙은 1M-700점, 3M -500점, 5M -300점으로 했으며

실속, 신체, 대풍 착륙은 200점씩 감점처리 했다.

*당초 선수당 2회씩 비행해서 그 중 높은 성적을 인정할 계획이었으나 시간관계상 1회씩만 비행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무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큰 필요없이 완파지 경기가 치루어 졌다.

'92년도 첫번째 대회답게 많은 봉사인들이 참석해서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되었다.

지면으로나마,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수고한 '대구 비버드 클럽'의 임양규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참여해 준 모든 팀과 봉사인들에게도 감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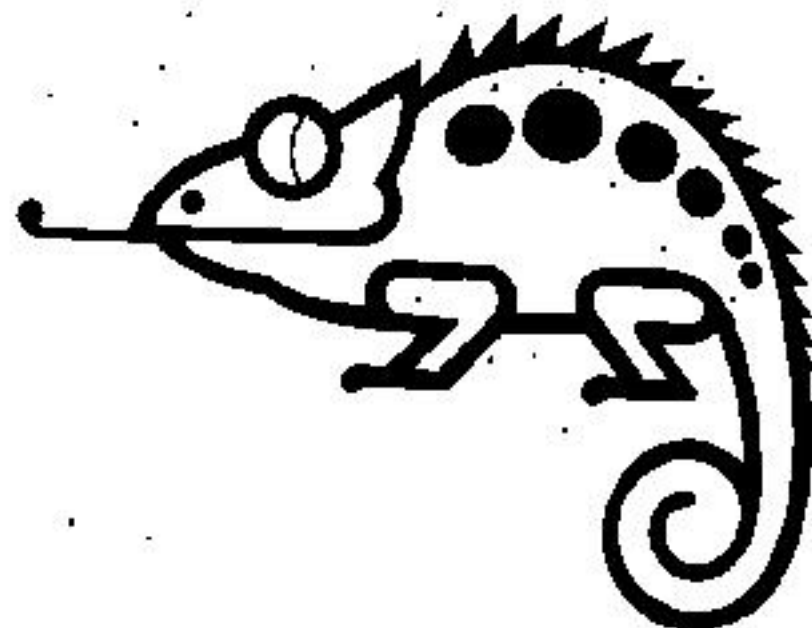
마음을 전한다. -442424-

대회참가팀 및 인원

대회 입상자 현황

No	참가팀명	인원
1	비취회	7명
2	공사	3명
3	카멜레온	5명
4	마스터즈	5명
5	원주솔개	12명
6	지리산운동	5명
7	경주스카이루프	7명
8	서울에어맨	8명
9	구미OB	6명
10	대교에달	2명
11	조수커	1명
12	전북행글라이더	4명
13	인하공전	1명
14	이리산바람	11명
15	광주제러맨	8명
16	포항항공	1명
17	충주에어맨	13명
18	영남알프스	3명
19	대구스카이루프	7명
20	조인회	4명
21	광주시호크	5명
22	대구제러	3명
23	여수하늘토	7명
24	부산파라(A,B)	20명
25	이음버스	1명
26	비공초	1명
27	해양소년단	7명
28	스카이맥스	8명
29	부산시절스	4명
30	포항하늘	3명
계	30개팀	172명

순위	연표	소속팀	이름	득점	시상내역
1	102	공사	이수열	1963점	20인치 T.V.
2	142	광주제러맨	김종호	1824점	권속
3	39	솔개	염형수	1799점	스키
4	15	지리산운동	이인재	1785점	에비 낙하산
5	95	부산파라협회	조대영	1771점	글라이더와장품 1세트
6	134	충주에어맨	김훈	1718점	
7	35	원주솔개	한동규	1656점	구부터렛
8	84	원주솔개	임종남	1657점	
9	86	서울에어맨	장선경	1545점	항공화장품 세트
10	76	이리산바람	정일억	1537점	
11	148	전북행글라이더	김대웅	1533점	
12	70	광주제러맨	김종현	1520점	유단학화장품 세트
13	33	서울에어맨	공종구	1477점	
14	74	경주스카이루프	김정환	1359점	
15	124	조인회	김남호	1345점	항공남성용 세트
16	104	부산파라협회	염영섭	1344점	
17	155	구미OB	김문권	1339점	
18	118	공사	정세용	1322점	7-세츠터렛
19	94	광주시호크	최미경	1319점	유단학남성용 세트
20	2	비공초	민영권	1260점	
21	24	경주스카이루프	정동환	1257점	
22	5	지리산운동	장기태	1251점	수업비누 세트
23	50	비취회	곽기영	1213점	



*참명은 점수순서임.

어떤 날

조인희 정 해옥

“고공을 향해 큰 사람만이 인생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 이야기는 지난 겨울 극한 상공속에서 삶의 소중함을 발견했던 나의 악몽같은 경험담을 적은 것이다.

스포츠라면 무엇이든 좋아하던 내가 패러글라이더를 알게 된 것은 직장상사의 권유 때문이었다. 패러에 대한 아무런 사전지식도 없었지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그 파랗한 유혹이 평소 호기심 많은 나를 자극시키고 만 것이다. 그러나 안전사고 방지책 위한 사전연습이 반드시 요구되는 운동이었기에 처음부터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선배들의 자비없는 당에서 말도 들 수 없었기 때문에 저널리즘을 위한 활공연습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상당히 열의를 갖고 연습에 임했던 것 같다. 때문에 여러 공기를 가리며 창공을 날았던 작년 8월의 저널리즘은 그 어떤 것에도 비길 수 없는 기록과 열의로 기억되고 있다.

8개월 후 보다 높이, 보다 자유롭게 활공하고자 개인장비를 구입했고 더 큰 만족을 갖기 위해 매주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패러의 크기는 더욱 커져갔고, 계절이 바뀔때마다 달라지는 바람의 조건을 자유자재로 이용 할 만큼 기량도 대나 향상되었다.

그러나 언제 어느때라도 자만은 금물이었다. 자연앞에서의 겸손함은 더더욱 금물인 것이다.

지난 2월의 마지막 일요일, 경기도 포천에서의 비행대 일이다. 먼저 후에 멋진 비행을 경험한 탓인지 행선지 출발 전부터 흥분을 감을 수 없었고, 조인희 식구들 역시 봄은 분위기에 순행이고 있었다. 그날 따라 나는 유난히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잠시 후에 벌어질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바람이 약간 세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예전처럼 활공 직전의 흥분이 온몸에 작은 전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륙 후 30~40분이 흘렀을까?

예기치 못했던 강풍이 그날 비행의 후반부를 장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찔함이 온 몸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순간 나는 판단력을 잃고 말았다. 이빨하라는 회원들의 외침이 들렸으나 패러는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고,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이미 너무 높은 상공으로 더 올라 버린 후였다.

이상기류로 인해 조정능력을 잃은 나는 패러에 몸을 맡긴 채 무뎠던 망향도 없이 밀려 가기 시작했다. 무려움으로 온몸이 떨려 왔고 탕탕함이 입안을 마속 타게 만들었다.

의원들의 제어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더 다닌 후에야 이튿날 산봉우리 나무가지에 걸터앉았으나, 눈 앞이 노랗게 되는 것을 느낀 것은 바로 그때였다.

보이는 것은 사망을 불러 쓴 산봉우리 뿐.

계다가 조금씩 움직이던 눈은 폭설로 인해 순식간에 온 산을 덮어 버렸다.

절박한 속에 시도한 무전기 교신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너무 경솔했구나!’ ‘너무 겁없이 행동했구나’ 하는 후회에 눈물까지 흘렸지만 절박과 절망에 시간을 소비할 수 만은 없었다. 어떻게든 이 곳을 빠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쌓인 눈으로 인해 산줄기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리던 눈이 잠시 멎고 의원들과 무전기 교신이 이루어졌으나 겨울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나로선 정확한 진로를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허리가 지쳐 쌓인 눈 위를 구르다시피하여 계속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제리글라이더를 정상에 두고 왔음을 깨달았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당황에 있던 당시의 상황에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산봉에서 4시간 이상을 헤매는 동안 날은 어두워졌고 시야는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현신안고 감에 수발을 다져나와 도로에 다다랐지만 지나가는 차는 단 한대도 눈에 띄지 않았다.

옥시 군부대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도로를 따라 걸었지만 도대체 무엇하나 나타나 주질 않았다.

그러는 사이 어둠은 깊게 드리워졌고, 나는 지칠대로 지쳐 도로변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한치 앞도 문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걷는 것도 힘들었고, 또한 더 이상 걸을 기력도 없었다. 대고름도 참을 수 없는 고동이였다. 설사 일어선다 하더라도 발견조차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버지, 엄마, 친구들, 조인의 의원들, 그리고 귀여운 조카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시는 제리를 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도 했지만, 우선은 살아야 한다는 현실에 몸서리가 치켰다.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선 목숨진다고 했는가?

스스로 정신만 차린다면 하룻밤은 이렇게 지낼 수 있겠다는 오기가 생겨났다.

그때까지 몸에 매고 있던 하네스 가방에 물을 찜어 넣고 종음이 오지 않도록 몸을 움직였다.

가방 안에서 빠져 나온 몇 개의 꽃감.

아마도 정생을 두고 그 꽃감의 맛을 잊을 순 없을 것이다.

나뭇가지를 휘어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무전기로 계속 교신을 취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몸은 사시나무치듯 정신없이 떨려 왔고, 눈앞은 가물가물 해지고 있었다.

무전기에서 응답하는 목소리가 들린 것은 바로 그 때였다.

야! 잠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 한도의 숨을 몰아 쉬며 무전기에 마구 소리를 질러 댔다.

고마운 사람들.

포기하진 않고 나를 구하기 위해 결국 목소리들 추적해 이 오지의 산길을 달려왔구나!

얼마나 음옴는지 뭉뚱부어 오든 눈이 제대로 더치질 않았다.

몽된 하늘이 환해지는, 그러나 아직은 어둠이 눈빛을 덮고 있던 새벽녘에 난 그들과 상봉할 수 있었다.

거칠고 어두운 산 속에서의 1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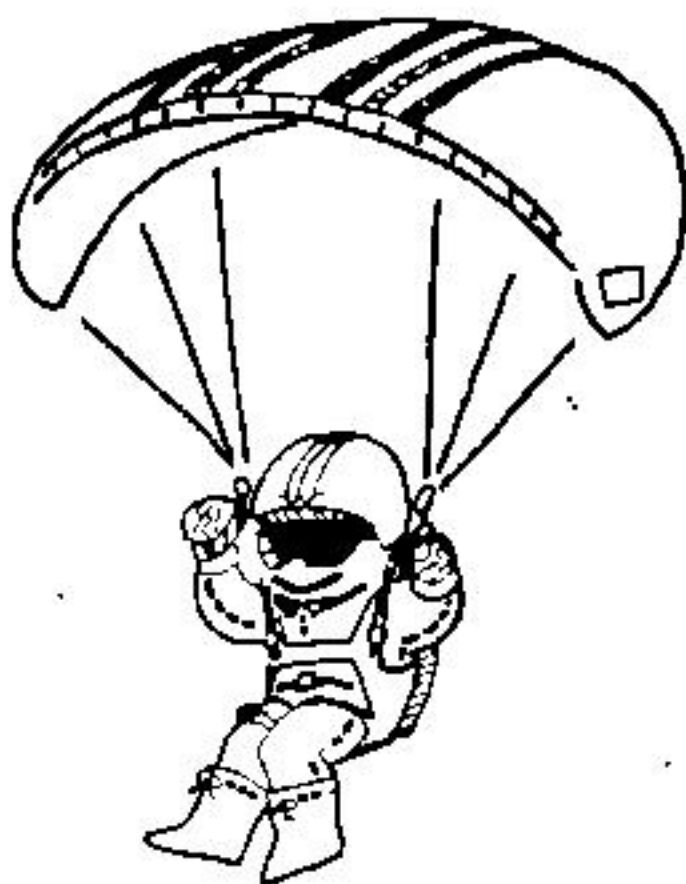
내 스스로가 살고 있는 목적과 살아야 할 이유를 계단계 해준 11시간의 고등, 그 악몽같은 경험이 앞으로의 내 인생에 있어 좋은 교훈이 되어 주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생명의 소중함.

자연앞에서의 겸손함.

그리고 나를 구해 준 선배, 동료의 뜨거운 사랑.

장생 잊지 못할 지난 겨울 일을 의상해 보며, 지면상으로나마 다시 한 번 조인하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소아령 (SOARING)

소아령에는 크게 나누어 뿔지(Ridge), 서머(Thermal), 웨이브(Wave)소아령의 세가지가 있다.

1. 뿔지 소아령 (Ridge Soaring)

뿔지소아령이란 경사면 상승풍(경사면에 도달한 바람이 경사면을 따라 위로 올라 감)을 이용하여 채공하는것을 말한다.

이는 파라글라이더가 갖고 있는 침하속도 이상의 상승성분이 있으면 채공, 또는 상승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 경우 경사면이 급하면 급할수록,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승성분은 커진다.

이것은 바람이 경사면과 직각으로 불어 올 때가 가장 좋은데, 직각으로 부터 어긋날수록 상승성분은 약해진다.

한, 경사면이 급할수록 이륙은 어려워지고 바람이 강할수록 위로 빠져버릴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과 사용하는 파라글라이더의 성능을 잘 알고 그 범위 내에서 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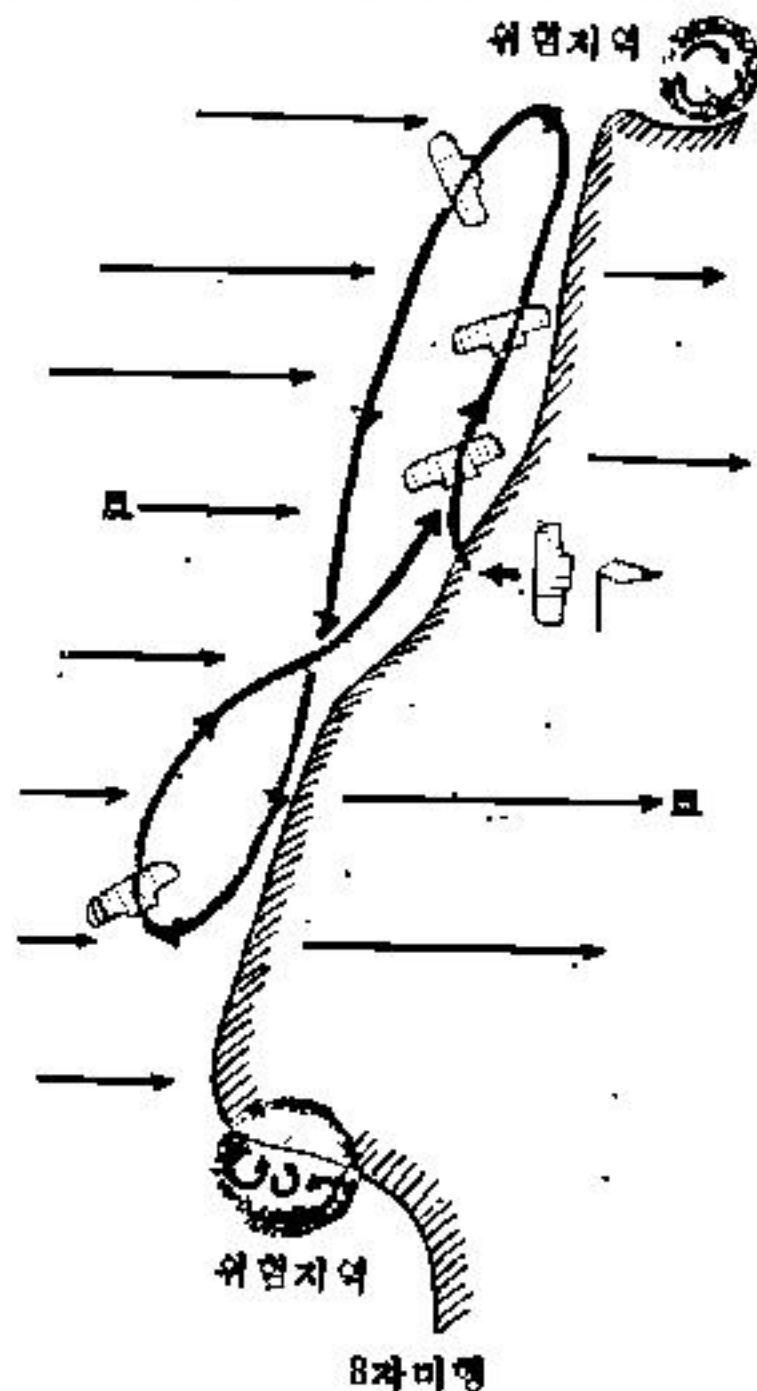
지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상승성분의 효율이 가장 좋은 부분은 정상으로부터 20~30° 전방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8자비행이라고 하는 비행습로 180° 선의를 행하여 항상 이 상승률이 가장 좋은 장소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된다.

한, 8자 비행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정풍이 있는 곳, 즉 사면의 반대쪽 방향으로 외전을 해야 한다.

일단 경사면 하단으로 내려 갔을 때는 상승률이 나빠져서 그곳에서부터 위로 올라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만대로 경사면의 정상으로 부터 뿔쪽으로 올라 들어 가면 그곳에는 상승성분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원풍이 강해지는 상황이 되어 성능이 나쁜 글라이더로서는 경사면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경사면 뿔쪽의 난기류 영역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경사면의 정상 부근에서 뿔쪽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꼭 주의해야 할 점이다.



2. 서머 소아링 (Thermal Soaring)

서머소아링은 열상승풍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태양에 의해 뜨거워진 지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그 때문에 지면에 접하고 있는 공기가 올라 가서 주위의 공기보다 가열계 되어 옆쪽으로 올라가는 열기둥 현상이다.

그러므로 태양의 열을 받은 장소로 부터 서머소아링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아스팔트, 도로, 전골이 노출된 장소, 바위, 건물외 옥상등이 주요 발생장소이다. 거꾸로 시냇가, 호수, 삼림, 논등은 서머소아링이 나타나기가 어렵다.

또 서머소아링의 상승률은 Lapse-rate (고도에 비례해서 기온이 내려 가는 비율:기온감률) 및 태양의 조사강도(태양광선을 직각으로 받게 되던 강해 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Lapse-rate가 좋은 경우와 태양의 조사강도가 강한 경우에는 서머소아링의 상승률도 좋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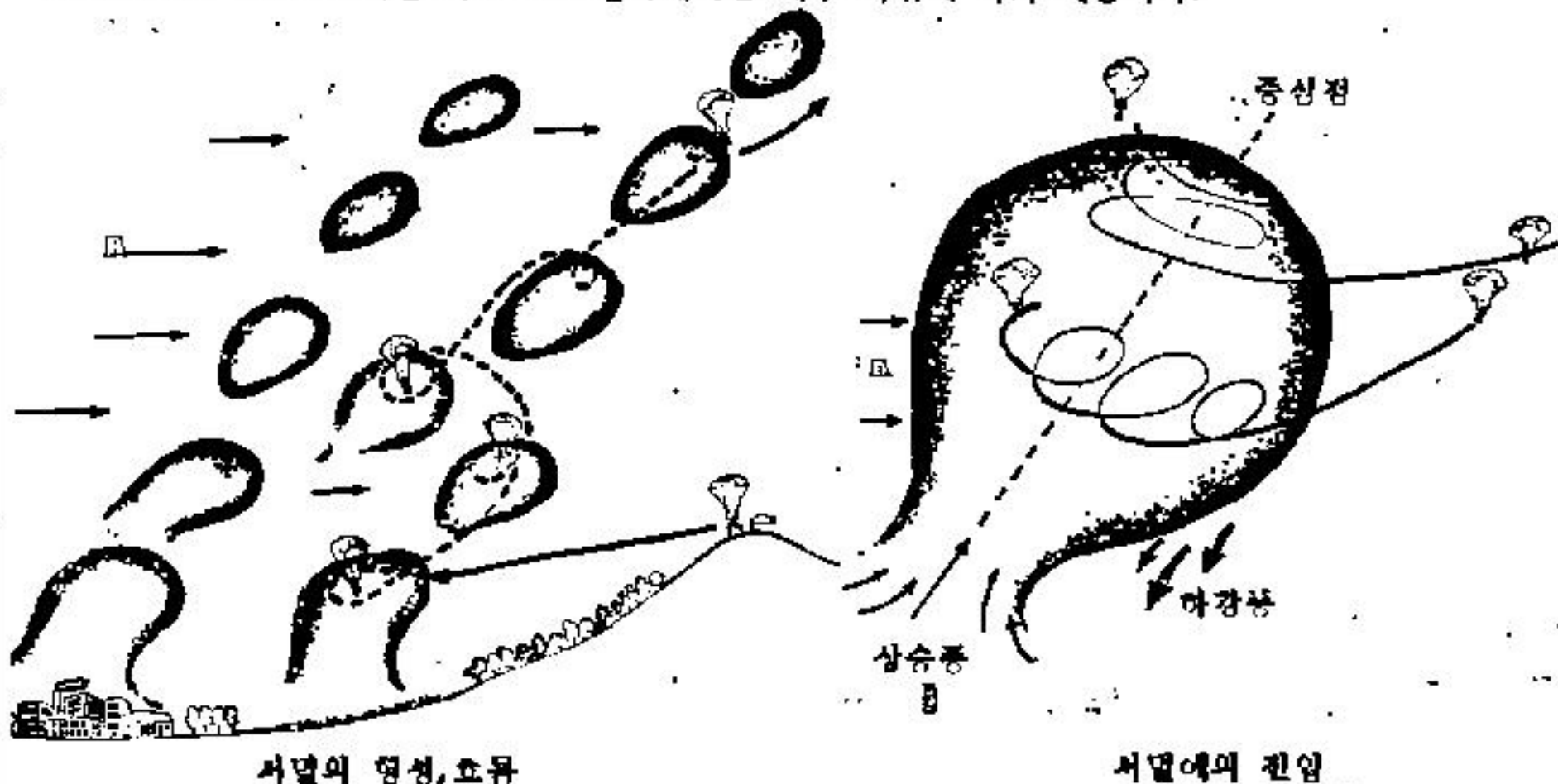
그러하여 서머소아링의 테크닉이란 중심점을 붙잡아서 가능하면 그 가까이를 비행하여 작은 반경으로 회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바리오메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초보자가 바리오메타에 의해 상승기류를 인식하고 그때부터 서덜에 진입하면 바리오메타가 상승을 표시할 때까지의 시간적 여유때문에 이미 실제 상승기류에서 떨어져 있게 되므로 만족적인 연습을 통해서 날개끝에 서덜이 느껴질 때 바로 진입해야 한다.

일단 선의를 시작하면 수초내에 바리오메타가 상승인지 서덜을 벗어난 하강인지를 표시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바리오메타를 의존해도 좋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각으로는 일정한 스피드로 상승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올라 가고 있는가, 혹은 내려가고 있는가를 눈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경사면 가까이에서 서머소아링의 가운데를 선회형(360°회전을 계속하는 일)하고 있다면 회전하는 풍경이 아래로 작아지기 때문에 상승이란 판단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고도가 상승하게 되면 실제로 자신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육안으로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서머소아령도 또한 바람에 의한 흐름이기 때문에 서멀의 중심부로 들어 가려던 센터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서머소아령내에서 센터링 할 경우에는 약간 풍상측에 선외의 중심을 두면 항상 서머소아령의 중심에서 외편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층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바뀔때마다 서멀의 상승기류도 각각의 단계에 의해 그 크기나 방향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흐르던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항상 서멀이 있다고 믿고 있으면 안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널가까이에서의 서멀은 아직 크기도 작고, 상승속도 불안정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지만 점차 상승함에 따라 서멀의 크기도 커지고 상승속도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센터링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쉬워진다.

서머소아령의 이용은 몇지에서도보다 훨씬 고급한 기술과 많은 연습이 요구되므로 초보자는 가મે게 시도해서는 위험한 경우를 만나기 쉬우며, 서머소아령에서의 비행법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소개하겠다.

3. 웨이브 소아령 (WAVE SOARING)

웨이브소아령은 연속하는 산맥으로 부터 바람이 흐르는 파장이 상하로 움직여져서 그 파장이 산맥의 파장과 합쳐질때 증폭되어 산맥의 풍하측에 생성되는 소아령이다.

웨이브소아령에 의한 LIFT(상승풍)은 매우 부드러운 제법 상승풍은 좋은 소아령이다.

이것을 이용하려면 웨이브상승풍의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안되어서 바람이 흐르는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비행을 하면 좋다.

이 경우 서멀과 물려서 센터링을 계속 할 필요는 없다.

단, 웨이브 상승풍과 상승풍 사이에는 하강풍대가 존재하여 거기에 어느 정도의 난기류 형성된다.

폭박한 경우에는 실제로 글라이더가 공중분해되는 정도의 강한 난기류를 만나기도 한다. 현재의 파라글라이더 성능으로는 아직 무리라고 생각된다.

원전 : 파라글라이더 "바람이 되는 책" (일본)

岡良 樹, 平田 寛 공저

번역 : 유호영

※ 다음 표에는 산악지대에서의 비행기술, 해변및지 이용 테크닉, 크로스컨트리 기술, 미행의 마티에이션 등에 관한 부분을 번역 소개 하였습니다. - 聯沅 主

부산 갈매기 - SEAGULLS

“부산”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항구, 배종대, 해운대, 동백꽃, 갈매기 등등....

예국가들 모르는 사람도 따라 부를 정도로 유명한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에도 어김없이 갈매기와 동백은 나온다.

갈매기와 동백이 부산을 대표하는 시조(市鳥)와 시목(市木)임이 분명한데 여기, 부산하면 항공스포츠의 도시로도 기억되고자 부단히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파라포커스가 만나보았다.

부산에는 한국 제2의 도시답게 많은 파라인구가 있지만 이번에 만나는 클럽은 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웃음이 떠오르는 “부산갈매기-SEAGULLS”팀이다.

부산은 靑山臨海의 지형으로 동북부에 810M의 금정산을 비롯하여 부산의 인근지역인 김해의 신어산, 양산, 은산, 밀양 지역에 걸쳐 있는 영남알프스 지역의 신물산, 간월산, 천광산등이 산재해 있어 어느 지역보다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기에 적합한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부산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패러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은 편이다.

부산 지역에도 몇개의 동호인 클럽이 있지만 시걸스클럽은 그 이름에서 보아꾸뚝이 바다위에서 우리들 지어 유유히 날아다니는 갈매기처럼, 회원 상호간 친목과 멋진 비행을 위하여 클럽회장인 유 용재(금정산장 대표)씨를 비롯하여 30여명의 회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용재씨는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86년 9월초에 부산 금정산에서 비행을 하였고(이 사실은 당시 부산일보에 보도되었음)그 이후로도 시걸스클럽은 주로 금정산의 원고봉, 장군봉, 삼개봉, 구덩암과 백양산, 김해의 신어산 등에서 개척비행을 하여 부산지역 패러글라이딩의 개척자로서 많은 동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시걸스 유의장은 패러뿐만 아니라 스카이다이빙과 암벽 및 빙벽등반등을 통하여 단련된 몸으로 비행감각이 뛰어나고, 비상시 대처능력이 월등하여 새롭게 패러를 배우는 초보자에게 훌륭한 교관이 되어 주고 있다.

이런 대회에서도 부상자를 세운까지 수송해 주고 부산으로 돌아 가는 성의를 보여 시걸스팀의 인간미에 여러 동호인들이 진한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친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유의장은 지난 해 대만에서 개최된 아시아선수권대회에도 참가하였으며, 올해초에는 일본 일주 비행과 오키나와에서 열린 국제 패러글라이더 대회에도 참가하여 여러 나라의 동호인들과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19일 부터 26일까지는 일본의 패러 봉호인 28명이 부산시걸스팀과 함께 양평 유령산으로 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한라산까지 한달도 일주 원선 여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으로 올 8월경에는 시걸스팀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주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시걸스팀은 비행기술보다 우선하여 인화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어 회원간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편이다.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으로 한달에 서너번씩 원정여행을 하고 있어 타지역의 봉호인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정시에는 가족을 동반하여, 혼자 즐기는 스포츠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발전시켰다.

회원들이 여행을 즐기고 있는 동안에 회원 가족들은 착륙장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비행하는 멋진 장면을 카메라와 필모더에 기록하여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 이제는 회원보다도 가족들이 먼저 장비를 챙겨서 원정을 준비 할 정도로 모두가 열심이다.

원정여행 장소로는 지리산, 유령산, 달성의 금계산, 대니산 영남알프스 지역과 김해의 신어산 그리고 기타 남한의 유명한 산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아직은 갈 수 없는 북쪽의 맥무산과 계마고원에서 조만간에 비행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시걸스팀은 확신하고 있다.

부산갈매기들이 맥무산 천지위를 화려하게 날으는 그 날을 기대하며, 좀 더 나은 비행기술 연마에 구슬땀을 흘리는 SEAGULLS들을 이런 주에는 어느 산에서 만날 수 있을런지....



<대 회> 원주 송개원(회장 윤 귀환)에서는 5월 5일~7일 양일간 치악산에서 파타공타이팅 대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경기 방식은 치악산 지형을 이용한 크로스컨트리로 진행 할 계획이나, 일정이나 경기 방식이 변동될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호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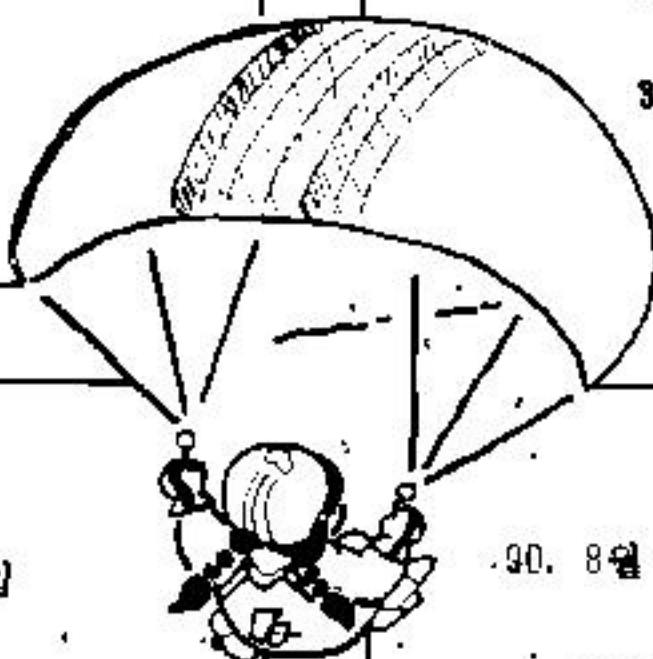
<개 임> 대학생 토론테저클럽 '유니트'에서는 이덴트 회사이며 회원제 토론테저 회사인 '유니트'를 오븐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오븐한 '유니트'는 마용철사작을 중심으로 8명이 주축으로 만들어 졌으며, 기존의 대한테덴트(565-8581), 동화 덴담(772-8811), 세와 베저(587-4070)등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전화 번호 : 547-9881

<동호인소식> 지난 2월 21일 부터 24일 까지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케지마섬(石垣島)에서 개최된 "국제 스카이 스포츠 카니발"에 동호인 19명이 참가했습니다.
때풍으로 인해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기타 항공스포츠 시연을 관람하거나, 국제 동호인들과 교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가팀은 마스터즈 3명, 카멜레온 4명, 증부 에어덴 3명, 항공덴담 2명, 조우커 2명, 대한테덴트 1명, 한국코바 2명, 조인회 1명, 부산 시점스 1명 이었습니다.

<이웃 소식> "제 1회 경주 힐튼 클럽 열기구 대회"가 3월 13일 부터 15일 까지 2박 3일간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이 경기에는 다이내스티, 그린 편, 이영 기획, 유니콘 기획, 아이디어 기획, 몽골 피에트 외 6개 팀 12대의 열기구가 참가했으나 기상 및 기하의 문제로 사실상의 경기는 무산되었습니다.

이 보너에서는 A팀의 이쁜이네 강아지 세마리 남은 거,
B팀의 용길동씨 장가 드는 것,
C팀의 돌리씨 난이져서 무릎 꿇진것 까지
연락 주시는 모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p>91. 8월 구입</p> <p>다스터즈 테이서</p> <p>12회 비행</p> <p>60~70kg 적당</p> <p>중급 이상</p> <p>50만원</p>	<p>91. 2월 구입</p> <p>파라콘 FD-24</p> <p>65회 가량 비행</p> <p>45~60kg 적당</p> <p>초급-중급</p> <p>30만원</p>
<p>90. 12월 구입</p> <p>파라콘 FD-28(주문제작)</p> <p>50회정도 비행</p> <p>75~90kg 적당</p> <p>초급-중급</p> <p>35만원</p>	<p>90. 8월 구입</p> <p>스카이-본</p> <p>80회가량 비행</p> <p>70~80kg 적당</p> <p>연습용, 교육용 적당</p> <p>30만원</p>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어릴적.

할머니 상을 당해서 가족 모두 나가고 혼자 민집에서
처음으로 밥을 지어 보았습니다.

살익고, 타고, 질고 영달이지만
그래도 맛있다고 드시던 아파의
사람 좋은 웃음이 생각납니다.

죽을 수는지 밥을 하는지도 모르고
선뜻 원고물 건네 주신 분들,
크고 작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열정만을 가지고
어설픈 것들이 많은 것을 단련해 내긴 했지만
여러 동호인의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조금씩 나아지는 파라포커스가 되리라
믿어집니다.

동호인 모두가
함께 밥을 맛있게 드시던
아파같은
넉넉한 미소를 지어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파라포커스 ☎ (02)515-4281

FAX (02)515-2227

강남구 논현동 18-2 대원빌딩

4층 유니스기역內